

**동우컴퓨터**

누구의 친구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善)이란 친구를 주셨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악(惡)이란 자가 슬그머니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이 두 친구는 절대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사이이다. 그래서 내가 한 친구와 가까워져서 함께 밥을 먹고 사랑하게 되면, 다른 친구는 자연 멀어지고 힘을 잃는다.

이 둘은 늘 내 안에서 서로 이기려고, 서로 나를 지배하려고 싸운다. 그런데 누가 이기는 줄 아는가? 내가 편을 들어주고, 내가 가까이하는 쪽이 언제나 이긴다. 결국 선과 악의 싸움의 승자는 나에게 의해 결정된다. 내가 선하게 살겠다고, 선을 추구하겠다고 생각하면 선이란 친구가 이기고, 남의 등이나 치고 살아야겠다고, 멋대로 살겠다고 하며 악에게 다가가면 악이란 친구가 승리하게 된다.

그런데 선이란 친구에 비해 악이란 친구는 체력이 강하다. 밥에 씨를 뿌리면 뿌리지도 않은 잡초가 나고 그것이 곡식보다 잘 자라듯, 악이란 친구에게도 잡초근성이 있어 굼겨도 잘 죽지 않고, 추방하려고 해도 잘 나가지 않는다. 기회만 되면 언제나 내게 찰싹 달라붙어 친한 척 한다. 반대로 선이란 친구는 잘 대접해야만 나의 친구가 된다. 천대를 받으면, 신경 쓰지 않으면 바로 나가버리고, 밥을 주지 않으면 즉시 죽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의식적으로 선이란 친구를 쫓기라고, 늘 선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해야 내게 유익한지 잘 안다. 다만, 의식적으로 선을 대접하지 않으니 악이 승리하고, 악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12:21)고 말함은 의식적으로 악을 멀리하고, 선과 가까이 하라는 것이다.

악이 관영한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선을 추구하면 반드시 악은 내 안에서 영원히 추방될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시37:7).

지난 화요일, 노량진 교육관에서 진행된 JC아카데미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성공 하길 원하면 먼저 정보를 수집한 후 시도 하라’는 주제로 정보만이 살 길임을 강조하셨다.

“기도원에 갔다가 하루는 담양장터로 나가는 길에 신현명 목사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그는 먼저 내비로 목적지를 입력하고 출발하더군요. 그런데 내비는 복잡한 장터를 멀리 우회하여 길을 안내합니다. 그러나 나는 담양장터를 기도원에 갈 때마다 자주 다녀본 바라 신 목사에게 ‘내비를 따르지 말고 내 말대로 가라. 이쪽으로 새길이가 있단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저 차지하려는 정보전을 보면 기업을 넘어서 국가가 나서서 산업스파이를 색출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습니까? 세계는 그야말로 때론 때시 정보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진국들이 자국기업의 특허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국가 간 통상협정에 주요 사안으로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다면서 시장에 대한 정보도 없이 뛰어드
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철저한 계
획을 세워드 힘든 세상에 계획도 없이 달
려든다는 것은 망하기로 작정한 것 아니

한 장소를 찾기 위해 장로님들을 선택하여 합당한 장소 물색을 지시했고, 몇몇 장소가 선정된 후에는 그 장소들을 아침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며, 주중에도, 주말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교통이나 접근성, 미래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또한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구하는데 있어서도 중국 시장까지 조사하여 찾았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정보가 중요합니다. 상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그가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해보세요.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은 따 놓은 당상입니다. 유리



JC아카데미(노량진 교육관)

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미에 가니까 차로 4시간 가야할 길을 인디언들은 30분 만에 넘어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경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는 겁니다. 월남전 때 미군이 왜 압도적 전력을 가지고도 베트남에게 연전연패했습니까? 지도에도 없는 밀림지역의 지리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베트남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정보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제1요소입니다. 정보가 없다는 것은 눈 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열강들이 첨단레이더탐재기나 군사위성을 띄우며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정보를 선점하여 전략적 우위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기술을 먼

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밭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잠19:2~3)고 통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땅을 공략함에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명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2지파 중에 족장 1명씩을 뽑아 가나안땅을 탐지토록 한 것입니다(민13:1~3).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먼저 정보 수집을 명령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예리고성을 공략함에 앞서 행한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수2:1). 일의 시행에 앞서 정보를 얻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인천교회를 건축할 때도 미리 적합

한 계약을 파내는 일에도, 결혼, 취업에도 다 적용되는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
다. 집을 산다, 주식에 투자한다, 미래에
차에 투자한다 하는 모든 일들도 정보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부화뇌동하여 조금씩 달려들었다
가 손해 보고, 사기 당하고, 그때 가서
울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매사 철저히
짚고 넘어가라고 얼마나 설교했습니까?
그래서 끝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
1:22)는 야고보 사도 말씀처럼, 제발 말
씀을 들었으면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요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 대면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4부: 오후 5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4:1~2)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꾀라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자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늘 채색옷만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요셉이 졸지에 노예가 되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기필코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였을까요? 어떻게든 성공하고야 말리라, 꼭 이 환경을 이겨 승리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도 이런 심정이 있습니까? 기필코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실천한다면 반드시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요셉이 성공한 것처럼 당신도 그리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목적의, 목표라고 합니다. 과녁이 있어야 활시위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런데 꿈은 크게 꿀수록 좋습니다. 내 환경이나 내 형편, 내 처지를 생각해서 '이 정도면 과분하지.'라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망상이라고 할 정도로 큰 꿈을 꾀야 합니다(시81:10). 비록 지금은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하늘을 뵈 삼아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형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꿈만은 아무지게 꿔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받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창28:20~22).

대충하면 불량품
최선을 다하면 명품

쥐뿍도 없는 데다 도망자 신세인 야곱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도 금의환향하는 꿈을 꿔습니다. 현실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꿈이었지만, 그는 마음껏 꿈을 꿔습니다.

야곱뿐 아니라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와 그의 형들이 들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다 일어나더니 자기 단을 둘러싸고는 넓죽 절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별이 짝 둘러서더니만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범상치 않은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요셉의 비전(Vision)이 되었습니다. 저도 광명시 칠산동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세계교구'라는 엄청난 꿈을 꾸었습니

다. 누가 들으면 비웃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고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꿈을 꾸었다고 그것이 그냥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결코 녹록치 않고,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결코 평평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되지요. 그때 좌절하지 않고 적응력을 키워 이겨내야 합니다. 버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삼촌댁에 도착한 야곱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적응하면서 이겨나갔습니다. 외삼촌이 품삯을 열

번이나 속여도, 그가 사랑했던 라헬 대신 레아를 속여

주었을 때도,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봉사할 때도 야곱은 환경에 지지 않고 적응하며 환경을 이겨나갔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채색 옷만 입을 정도로 사랑을 받던 요셉은 졸지에 노예가 되었지만, 환경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적응했습니다. 심지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들어가서도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제반 사무를 요셉이 다 처리할 정도로 잘 적응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IQ(지능지수)가 좋은 사람이 출세했지만, 세상이 달라져 IQ보다는 EQ(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이 세상을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AQ(역경지수)가 높아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AQ(Adversity Quotient)란 어려운 일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뚫고 나가느냐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역경지수를 말하는데, 성취하는 자와 성취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바로 AQ의 차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패기,

이것이 AQ가 높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저 역시 핍박과 모함으로 점철된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야 같은 길을 37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전적인 도움이 우선이었지만, 또 하나의 요인은 남들보다 높은 AQ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매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대충이란 균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충 일하면 불량품이 나옵니다. 대충 인생을 살면 불량품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살면 명품 인생이 됩니다.

야곱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곱도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

며 눈을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다

이다"(창31:40)라고 고백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외삼촌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부가 되어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매사 최선을 다했기에 보디발의 가정에서 인정받았고, 옥에서도 신임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바로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대신에 올라서도 그는 가룸에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애급을 부유하고 막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매사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영혼에게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세계를 교구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에게 차선은 없습니다. 차선이란 살아남기 위한 조잡한 수단이니깐요. 하나님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고 하였고,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고 말씀하셨으며, "누구

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눅9:24)고 말씀하심으로 매사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웃백이란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장이 가만히 그 소녀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느리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설거지를 하면 세제로 닦고 물에 행구어 바로 선반에 올려놓는데, 그 소녀는 물기에 젖은 그릇을 꼭 마른 수건으로 닦은 후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일든 두 번 할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 소녀가 비록 일의 속도는 느렸지만, 완벽한 마무리를 해놓으니 더 손떨 것이 없었습니다. 점장은 지사회의에 나가 이 사례를 보고하였고, 발표를 들은 회장이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로 채용하였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딤후4:15). 예수님도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10:27)고 하셨습니다.

세상일을 해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뻔해'가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뻔해'가 되어야 합니다. '대충', '덜렁덜렁', '눈 가리고 아웅'을 버려야 합니다.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2~23).

여러분, 성공하려면 먼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합니다. 처한 환경에 불만하지 말고 적응하면서, 매사 최선을 다하면 목표가 당신을 향하여 달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웅달샘 ::

투자의 고전

안경을 바꿔라

어느 분야에나 고전이 있습니다. 고전은 세월의 검증을 받은 책이고,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위대한 책으로 인정받았기에 고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투자 분야의 고전도 동일합니다. 투자의 고전을 통해 우리는 투자 이론과 투자심리를 이해할 수 있고, 투자 역사를 통찰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활개를 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지식이라는 힘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지식은 투자의 고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번 칼럼부터 <포브스>가 월 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물’이라고 이름 붙인 파이낸셜 저널리즘의 초창기 개척자로, 1900년대 중반 최고의 투자관리자로 명성을 쌓은 제럴드 로브의 투자조언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투자는 전투에서 전쟁으로,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그 자체로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장래에 사용하기 위해 현재의 구매력을 아껴 두는 것 역시 투자인 것이지요. 투자의 진정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필요 이상의 현재 구매력을 미래에 쓸 수 있도록 비축하는 것입니다. 화폐가치가 늘 변동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 상승, 화폐가치의 하락에 대비해 현재의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투자에서 가장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점에서 로브는 투자를 위해서는 명목상 금액이 아니라 구매력에 기초한 수익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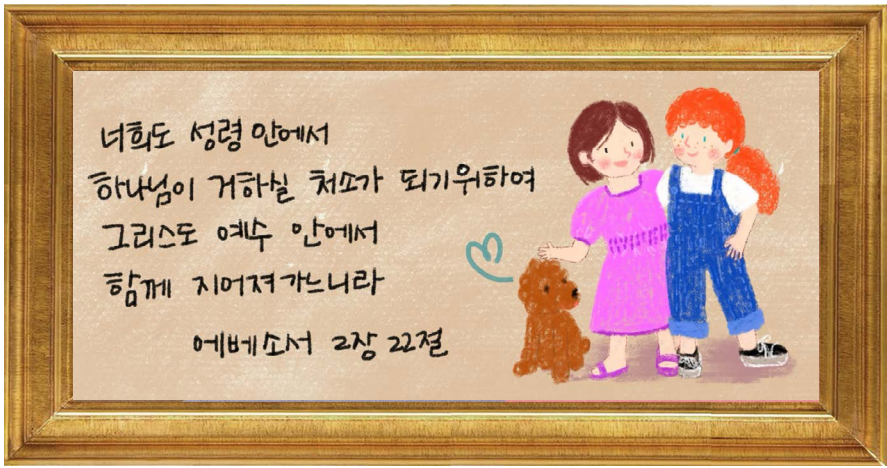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가가 오를 때는 최초의 투자원금이 구매력을 상실한 만큼 이를 보충해줄만한 충분한 추가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또 물가가 하락할 때는 처음에 투자한 명목상의 금액을 최대한 유지해야 합니다. 대개 물가상승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아도 투자수익을 올리기 쉽지만, 물가하락기에는 손실을 보기 쉽고 손실규모도 크지요.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검토해보고,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투자목적, 성공가능성 등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일단 목표의 절반이상은 달성하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투자의 성공여부는 투자자의 능력과 그가 가진 돈, 시장에 뛰어드는 시점, 투자하는 동안의 시장 분위기, 그가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의 크기에 따라 좌우됩니다. 분산투자는 초보자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 반대로 진짜 큰 돈은 집중투자를 통해 벌 수 있습니다. 경험을 더 많이 쌓을수록,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워갈수록, 스스로 투자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질수록, 분산투자의 필요성은 더 적어질 것입니다.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찌어다’(욥8:8).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하셨으니 투자의 고전을 통해 지식을 더 채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충성된 하인이 되어 줄 재물도 풍성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동물의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자 총지휘관인 사자가 소집령을 발동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모여 전쟁 준비를 하는데 수군수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나귀는 멧덩구리라서 전쟁에 방해만 될 테니 안 가는 게 낫지.” “토끼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싸움을 한다고 온 거야! 한심하군.”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적에게 금방 들통이 나고 말걸. 도대체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야?” 이 소리가 총지휘관인 사자의 귀에 들어 가자 사자가 호통을 쳤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라! 내게 다 작전이 있다.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것이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며,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일을 할 것이다.” 사자의 말에 수군거리던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봅니다.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못 써.”가 아니라 “저 사람은 이것을 잘해.” 하는 겁니다. 들이박는 소가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이박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대부분이 낙제였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잘하는 것이 있으니 수학이었습니다. 그는 단점에 매몰되지 않고 장점을 키웠더니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을 보면 이 세상에 쓸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장점을 보면 모두 쓸 만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안경을 바꿔 끼어야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습니다(잠 11:30).

예수중심편집실



:: 생명의 말씀 ::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어른이 있는 행복한 가정

대학부 토요예배를 마치고, 한 형제가 상담하고 싶다고 해서 전화통화를 했다. 그 형제의 말은 이러했다. “오늘 전도사님 설교를 통해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시간도 눈물을 펄펄 쏟을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원인모를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나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요. 예배를 드릴 때 받는 은혜와 감동은 물론 귀한 것이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의 삶이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과 현실의 삶 사이의 갭(Gap, 차이)이 느껴질 때 공허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청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마음의 예배(Heart of Worship)’라는 곡이 있다. 이 곡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 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헛된 것이 되지 않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동이 성전 밖으로 흘러넘쳐야(Overflowing) 한다.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한다. 내 입술로 내뱉은 찬양 가사들이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도록 고백한 대로 살아내려 하는 부단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신학교 때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목회자의 설교는 단 위에서 뱉은 말 50%와 단을 내려온 뒤의 삶 50%로 이루어진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가 단을 내려와서 보이는 모습을 통해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말이다. 우리 개개인의 예배에 있어서도 동일하지 않을까. 성전 안에서의 깨달음과 감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을 나서서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 감동을 따라 살아낼 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온전해진다. 예배가 끝나고 난 뒤, 성전 문을 나서는 그 순간이 바로 삶의 예배의 시작이다. 나의 예배가 반쪽짜리 예배가 되지 않도록, 나의 몸(=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자(롬12:1).

신혁주 전도사

1970년대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가 ‘한국의 가족제도가 그렇게 부럽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토인비가 부러워했던 것은 여러 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제도의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거기에 어른이 있고, 효도가 있고, 사랑이 있는 가정의 유대와 질서였을 것이다. 당시만 해도 우리 가정과 사회에는 분명히 어른이 있었고, 그 어른이 가정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 어른은 꼭 무엇을 많이 알거나 많은 것을 가졌거나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집안의 어른으로서 모든 가족이 권위를 인정해주었고, 분쟁이 있을 때는 어른의 최종판단결과에 모두가 따라주었다. 그래서 늙고 병든 노인일지라도 집안에는 어른이 있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한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의 가족제도와 집안 어른의 역할이 사라져가고 있다. 유럽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을 몰아낸 계몽주의다. 계몽주의란 하나님 없이도 머리만 잘 쓰면 잘 살 수 있다는 사상이다. 이 어른이 없는 문화가 들어와 나라 곳곳에서 중병을 앓고 있다. 이 시대는 사사가 때

와 같이 어른이 없는 시대로 보인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어른)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21:25). 이는 각 개인의 주관적 판단과 자기 욕망으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무질서한 사회였다는 것이다. 법이 무너지고 개인의 주관이 주장하는 사회가 되어 자기 멋대로 행동이 나타난 것이다. 법이 잘 지켜진다는 의미는, 보이지 않지만 어른(왕)이 계시다는 의미요, 법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른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가정(공동체)에는 어른이 있는가? 또 나에게서 어른이 있는가? 내가 그릇 행할 때 책망해주는 어른이 있는가 말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닮았을 때는 항상 어른이 있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어른 나단의 책망에 눈물로 회개한다. 그러나 사울 옆에는 어른이 없었다. 하나님은 어른(사무엘)을 보내 주셨건만 듣지 않아 그를 떠나버린다. 하나님과 부모님,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의 어른이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하면 내 삶과 내 가정(공동체)이 천국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임택함 목사

:: 간증 ::

:: 귀를 기울이세요 ::

다 감사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수중심교회 성도 운영광입니다.

저는 서른 살입니다. 저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트럼펫 수석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의료진의 실수로 인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하실 당시 어머니의 지인분으로부터 유기농 사과주스를 먹으면 태아에게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유기농 사과주스를 사러 가던 도중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극심한 통증에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곧바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119를 불러 큰 병원으로 이송조치가 되셨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양수가 터지는 응급상황이 벌어졌으며 당장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

다.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일곱 달 만에 세상에 나왔고, 석 달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어야만 하였습니다. 신생아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때는 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눈을 안대로 가리고 들여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실수로 인

해 저는 안대 없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로인해 저는 눈이 빛에 노출되며 망막과 시신경이 손상되어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사실이 원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눈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편함, 그리고 불평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실수를 한 의료진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저의 간증을 통하여 저의 시각장애가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 요소이며, 제가 시각장애가 된 덕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모든 것을 몸과 마음으로 다 인지하기도 전에 사고로 인해 실명이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안대가 채워지지 못한 상황에서 인큐베이터에 석 달간 있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제 몸과 마음이 아예 기억조차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모든 걸 다 몸과 마음으로 인지할 때에는 이미 실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적응할 필요도 없이 그저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에 보이다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실명한 후천적 시각장애인들보다는 재활과 자립에 있어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팔과 두 다리를 주시고 팔다리의 원활한 기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을 허락하셔서 시각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게끔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도입으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국가와 사회에, 모든 이웃들에게 감사합니다. 눈으로는 범죄치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쁜 것을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길을 갈 때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자를 붙여주신 하나님과 안내를 하여주는 안내자에게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상황에 정상인들보다 하나님께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니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트럼펫 연주를 잘할 수 있는 음악적인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나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받고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 자신의 마인드에 따라 상대방도 나를 대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나 자신의 현재와 미래와 많은 상대방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고 그들에게 귀감의 대상이 되겠지만, 나 자신이 원망불평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나 자신의 현재와 미래와 많은 상대방들이 내 곁을 다 떠날 것이며, 원망불평으로만 가득 차 있는 나에게 그 누구도 무언가를 기대하지조차 않을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기대를 안 하시고 축복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껏 늘 제 삶에 있어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로 가득 찬 삶으로서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항상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감동과 도전을 심어주는 사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 자녀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의 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운영광

융통성과 유연성

얼마 전 목디스크가 심해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10년 전 디스크를 앓고 오랫동안 치료를 했는데, 또 재발이라니 안타까웠다. 우선 총회장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내가 했던 습관들이 모두 목에 무리를 줬음을 알게 되었다. 휴대폰을 보기 위해 고개를 장시간 숙이고, 집에 누워서 노트북을 하고, 목에 푹푹 소리가 날 정도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모두 목을 뻣뻣하게 만드는 행동들이었다.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평상시에는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준 스트레칭은 목을 ‘도리도리하는 운동’이랑 어깨를 ‘으쓱으쓱하는 운동’인데, 모두 목과 어깨에 힘을 빼주는 운동이었다. 선생님 말씀대로 실천을 해보니 한결 목이 시원하고 통증이 없어졌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몸에 힘만 빼주는 운동종목(알렉산더 테크닉)이 생겨날 정도로 몸의 유연성을 기르는 것은 몸을 건강하고 한결 가볍게 한다. 우리 몸의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운동을 하는데 수축보다는 이완할 때 운동효과가 더 좋게 나타난다고 한다. ‘몸의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보니 인간관계에서도 수축보다는 이완하는 유연성, 융통성을 가질 때 더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경우가 많았던 거 같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항상 사업이나 목회에 있어서도 원칙은 가지되 융통성과 유연성을 가지라고 설교하신다. 사회에서도 신축성 없는 딱 막힌 사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뻑뻑하게 하는 사람은 인기가 없다. 능글맞게 웃어가며 주위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다. 우리 예수중심교인들은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굳어있는 어깨나 목처럼 뻣뻣하게 하지 말고 만사 여유를 가지고 유연성과 융통성이 함께하는 관계를 만들어보자.

송현혜

:: 성경에세이 ::

사랑의 표현

여보게!

내가 목회를 시작하고 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서 집을 나왔지. 정확히 표현하면 집에서 쫓겨났네.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예순가, 야수에게 미쳐 제사도 안 지내고, 재산을 무 자르듯 잘라 쓰는 아들을 더는 못 보신다고 해서 차 트렁크에 옷만 싣고 집을 나왔네. 그렇게 생이별을 꽤 오래 했지. 그러다 어머니가 보고 싶고, 가족들도 보고 싶어서 집에 들르면 우리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며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내 옷을 갈기갈기 찢으셨지. 그때는 그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네. ‘이제 그만하지.’ 하는 생각에서 그랬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아졌네. 그것이 우리 어머니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 어머니는 당신은 도저히 이해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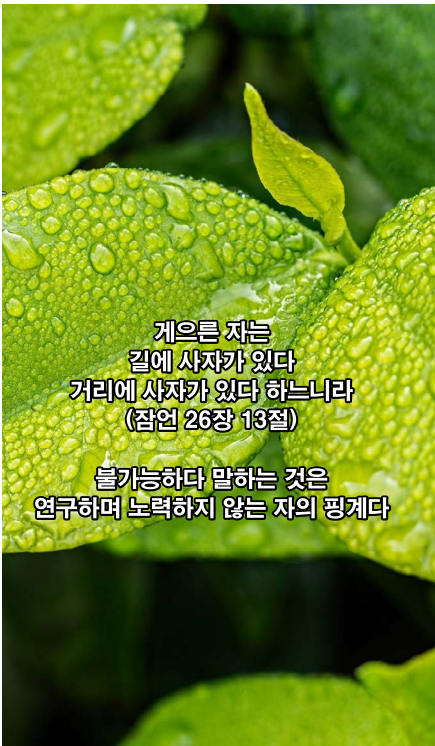
수 없는 세계에 빠진 망아들 때문에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 그 아픔과 사랑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지. 그걸 깨닫고 나니 우리 어머니의 당시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네. 이제는 세상을 떠나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때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하고 가슴이 미어진다네.

사람들은 내게 왜 단에서 그렇게 화를 내냐고, 왜 그렇게 소리를 뽕뽕 지르냐고 하지. 그러나 그건 오해네. 나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야. 그건 내 사랑의 표현이지. 우리 성도들이 내 말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마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듣기는 듣되 행함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걱정과 근심 속에 사는 것이 속상해서 그런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니 소리가 절로 커지는 거지.

여보게!

사람들은 신명기 28장을 읽고는 왜 저주장이 축복장보다 기냐고 묻곤 하네. 하나님이 축복보다 저주를 주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냐고 오해를 하지. 그러나 그건 그분의 사랑 표현이라네.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폭풍처럼 몰려오니 제발 내 말 좀 잘 들어라.’ 그런 거라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뭇 하러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겠는가. 제발 이런 저주를 피하라는 그분의 표현 아니겠나.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람의 깊은 속을 읽을 줄 아는 것 아니겠나. 같은 맥락으로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속을 깨닫는 것 아니겠나. 그것을 깨달을 때 효심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 아닐까.

봉우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잠언 26장 13절)

불가능하다 말하는 것은
연구하며 노력하지 않는 자의 핑계다